

'이 대통령도 반한 그 맛' | 이 사람: 전주 신중앙시장 '갑부 수제 돈가스' 정영미 사장

전주시 신중앙시장 내의 작은 분식·돈가스 가게가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화제의 인물은 신중앙시장에서 '갑부 수제 돈가스'를 운영하는 정영미 사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2월 말경 이재명 대통령이 전복을 찾아 타운홀미팅 후 직접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고추튀김을 맛본 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곳은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는 명물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사장은 지난 5월 1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힘든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이후 자신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나가셔서 반가워서 대통령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는데 직접 가게를 찾아주셨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정 사장은 "자신의 가게 고추튀김이 워낙 커서 잘라 드려야 하는데, 당시 하도 정신없이 가위를 들고 잘라 드렸다"며 당시 경험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런데도 대통령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드셔 주시고 직접 고추튀김을 잘라가며 맛있게 드셔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이후 전국 방송에 나와 홍보가 되는 바람에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 정 사장은 "대통령님이 다녀가신 뒤에는 매출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다"며 "워낙 전국적으로 홍보가 배다 보니 외지에서도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들렀다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전주 한옥마을을 찾



“손님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즐겁게 장사하고파 신중앙시장이 더 활기차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됐으면”

은 관광객들이 신중앙시장까지 찾아와 '대통령님께서 먹고 간 맛집'이라며 돈가스와 핫도그, 고추튀김을 주문해서 먹고 간 바 있다고 정 사장은 밝혔다. 정 사장은 "가게를 하며 큰돈을 버는 것보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게 더 기쁘다"며 "처음 시작한 장사인데 힘든 것보다는 손님과 대화하며 즐겁게 장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게 이름인 '갑부 수제 돈가스'도 눈길을 끈다. 정 사장은 "기존 가게를 인수하면서 간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며 웃었지만,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름처럼 진짜 갑부가 될 집"이라는 덕담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 사장은 대통령 방문 이후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밭이 직접 홍보 프립카드 디자인도 만들어 붙여줬다"며 "대통령님이 우리 가게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 너무 든든하다. 그래서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대통령이 사용한 지역산 상품권도 소중히 잘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님이 직접 주신 상품권이라 이름까지 적힌 그대로 잘 보관해 두고 있다"며 "힘들 때마다 보면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모두 직접 만드는 수제 음식들이다. 돈가스는 물론 고추튀김과 각종 튀김류까지 정 사장이 매일 직접 손질하고 튀긴다. 작은 가게지만 모든 과정이 정 사장의 손끝에서 이뤄진다. 정 사장은 "4년여간 장사를 해오며 아직은 돈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 아이를 잘 키우고 손님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즐겁게 장사하고 싶다"며 "신중앙시장이 더 활기차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바람을 전했다. 한편 전주 신중앙시장은 최근 전통시장 먹거리와 서민 경제 활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문 이후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갑부 수제 돈가스'가 자리하고 있다. /오상근기자



전주농협 등, 영농지원 발대식·농촌 일손돕기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과 NH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김대호)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19일 전주시 색장동과 호성동 일대 복숭아 재배 농가에서 2026년 영농지원 발대식 및 농심전신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전주농협, NH농협 전주시지부, 전북농협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영농지원 발대식을 가진 뒤 현장에 투입돼 복숭아 수기 작업을 지원하며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초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임직원들은 직접 농작업에 참여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농가 관계자 이모 씨는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인데, 농협 직원들이 직접 나서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영농철마다 반복되는 일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전문가 초청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8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질적 작동성 강화를 위해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9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과 재해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토목·건축·기계뿐 아니라 전기·통신·소방 등 전 공종의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강화된 안전 관련 법규에 대응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기술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공종별 사고 사례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취약 시기별 현장 점검 포인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방안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공사 측은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방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건 사고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청정지대, '함께 도전 데이' 성료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는 최근, 청년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하나인 '함께 도전 데이(DAY)' 행사를 열고 신체활동을 통한 또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참여 청년들이 지인과 친구를 초청해 함께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연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 연령이 아우러져 즐길 수 있는 동시 참여형 게임을 중심으로 짜였으며, 참가자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되찾았다.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먼저 극복한 또래 지원단(서포터즈)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청정지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학부모-교육청 협력 강화"

이상순 신임 전북학부모협의회 회장

전북학부모협의회 제4대 회장에 이상순 익산학부모협의회 의회장이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전북학부모협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전북학부모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4기 임원진 선거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 회장에는 이상순 익산학부모협의회 의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에는 장재원 전주학부모협의회 의장과 이상연 장수학부모협의회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감사는 김지숙 군산학부모협의회 회장, 총무는 김성만 남원학부모협의회 의장이 맡게 됐다. 이상순 신임 회장은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협의회를 만들어 전북의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부모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학부모협의회는 도내 학부모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간 소통 창구로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와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왔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는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전복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체"라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전복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부안군 환경사업소, 진서면서 농촌일손도와

부안군 환경사업소는 지난 1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서면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해당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의 일환인 마늘종뿌기 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이달 말부터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도내 경력단절 여성 대상... 9월까지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은 오는 5월 말부터 9월까지 전북 권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소한 하루, 사소한 기억'을 회화 15명 이내의 소규모 수업으로 총 4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위축을 예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자기 회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3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돼, 돌봄과 육아 중심의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그림과 색, 꽃을 매개로 자신의 감정과 하루를 표현하는 참여형 예술교육으로 진행된다. 작품 감상과 창작 활동, 이야기 나눔을 결합한 공감형 방식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감정과 생각을 부담 없이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참여 작가와 함께하는 작품 감상 △오늘의 감정과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 △꽃과 색으로 표현하는 감정 드로잉 △참여작가 간 작품 소개와 이야기 나눔 등으로 구성. 참여 신청은 전화 접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술관(063-620-5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투 기자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수칙, 교통안전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방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어 목욕비 바우처카드, 무상교통카드 등 어르신 지원사업과 함께 2차 교육이 피해지원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시정사항을 안내했다. /남원=김기투 기자

남원 노인복지관, '방방곡곡 행복밥상' 진행

남원시 노인복지관(관장 장진석)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및 나눔이 프로그램 '방방곡곡 행복밥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KES강태원복지재단이 주최한 2026년 어르신 외식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마련, 평소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 교류가 적어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어르신들은 행사 당일,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능이오리백숙으로 여유 있는 점심 식사를 즐기며 건강한 한 끼를 함께했으며, 이어 교통안전 일대일로 이동해 봄 기운이 가득한 산책을 즐겼고,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정서 교류 시간도 가졌다. /남원=김기투 기자



남원 금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현장 간담회



부안군 안전총괄과(과장 허용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서면 청림리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취약 농가를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출하 시기를 맞은 쪽파 뿌기 작업과 마늘대 자르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마늘과 쪽파 수확기가 맞물려 일손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열정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안전총괄과, 상서면서 농촌 일손돕기

부안군 문화예술과는 1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늘종 제거 작업을 통해 구슬땀을 흘렸다.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추진 기간에 맞춰 진행돼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현장활동이 추진됐다. 마늘 농가주는 "영농철에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문화예술과, 마늘농가 찾아 일손 도와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